

# 성경 예언 해설집 <2회>

## 서론

(지난호에 이어서)  
한반도에 숨겨두었던 단 지파의 정체를 세상에 드러내어 신의 뜻을 성취하는 시점에서 필자는 신의 지혜를 얻어 영계(靈界)의 실상을 보고 깨달은 것을 덮어 두고 있을 수 없어 신앙 양심의 명을 따라 예언을 해설하여 증거하는 것이니 이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옷을 입고 있으면 몸의 생김새를 몰라도 알 수 없으나 옷을 벗으면 숨김없이 모습을 알 수 있듯이 예언의 해설집은 가장(假裝)한 옷을 벗은 것과 같은 격이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마귀와 싸우면서 성경의 주인공을 유다 지파로 위장(僞裝)시켜 왔으나 때가 이르매 위장을 걷어버리고 진본(眞本)을 표시시킨 것이다.

### 장자의 계통과 방계(傍系) 형제와의 경계

이긴자가 하나님의 빛으로 오신 것을 터득하면서 신도들의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였다. 성경의 깊은 뜻을 알게 되는 지혜가 샘물같이 솟아나니 옛 조상들의 자취까지 현실로 보는 듯하고 과거 선지자들의 영적 수준까지 알아보는 영역이 생기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실패한 후 다시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고 고도의 전략을 기록한 비밀문서이니 비밀의 내용을 예언에 모두 숨겨두었다. 마귀에게 속한 죄인들에게는 알 수 없도록 인봉하였으니 성경의 범통(法統)을 계승하였다고 자부하는 유대교와 예수교는 지금까지 성경을 보관하고 관리한 역할을 하였을 뿐이요, 그들은 성경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예언서는 승리하신 완성자를 위하여 기록하였으니 예언의 비밀을 완전히 공개하여 바로 설명할 의무가 필자에게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예언을 해설하였으니 독자들의 눈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기대한다.

노아로부터 사도 요한까지 3천여 년이 경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경륜(經綸)을 예언으로 표현할 때 마귀의 노예인 죄인들의 지혜로는 알 수 없도록 묵시(默示)와 암시(暗示)와 상징(象徴)과 비유(比喩)로 기록하였다. 그러나 예수교는 예언을 육적으로, 직설적(直說的)으로 대부분 해석함으로써 오류(誤謬)를 범하

였다. 인류는 한 핏줄이요 한 나무와 같으니 나무는 원줄기가 있고 수많은 곁가지가 있듯이 성경상 족보를 고찰하면 원줄기인 장자의 계통으로 하나님의 주체신이 방계(傍系) 형제와 경쟁하면서 드러나지 않게 활동하였다.

### 유대인들이 고대하는 시온주의 영광이 동방 한반도에서 실현된다

가나안 땅에서 유다 자손을 중심으로 요란스럽게 선민의 역사를 행한 듯하나 그것은 빈 수레가 굴러가는 시끄러운 소리였다. 집을 실은 수레가 된 단자손은 소리나지 않게 가나안을 떠나 동방 한반도로 인도되었고 그 성결한 혈통으로 하나님은 승리자를 키우셨으니 성경은 요한을 끝으로 예언의 막을 내리었으나 침묵을 지키던 이 민족 단자손은 고려조에 들어와 불교계 선지자들이 미래불(未來佛)이 감로(甘露)를 가지고 오시면 세상을 구제한다고 예언하였고 조선조에 들어와 격암(格庵) 남사교(南師古) 선지자를 중심으로 예언하였으니 정도령이 감로 해인(甘露海印)을 들고 오시면 새 세상이 온다고

증거하였다. 21세기는 동방 한국의 빛이 세계를 비추는 시대이다. 예언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자 메시아로 오셔서 불사 영생의 당신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이다.

성경 예언 해설집은 영생의 세계로 가는 신앙인들의 길잡이가 될 것이요, 성경 축소판으로서 성경 신학의 지침서(指針書)가 되며 성경 지식을 함양(涵養)하는 사전(辭典)으로 좋은 참고서로, 신앙 교육에 교재가 될 것이다.

20세기 초에 아시아의 예언자인 인도의 타고르와 일본의 내촌(內村)은 예언하기를 한국은 동방의 빛으로 세계를 비추는 날이 온다고 예설하였으니 21세기 초 한반도가 통일되는 날 세계의 기운(氣運)은 반도 강산으로 모여 온다.

3천년 전 유대 왕국 솔로몬 시대를 유대교와 예수교가 찬미(讚美)하고 있으나 유대 왕국은 건국 태조 다윗이 칼의 힘으로 내외의 세력을 굴복시키고 세운 나라 인고로 80년을 반짝하다가 꺼졌으나 이 땅에 성립될 신정국(神政國)은 다니엘이 말한 바 성도의 나라로서 영원하리니(단 3:44, 단 7:27) 유대인들이 고대하는 시온

주의 영광이 이 땅에 실현된다.

인간의 소원을 현세에서 실현시키지 못하는 것을 후세에 이루어진다고 저들의 경전에서 약속하고 있으나 후세에 가서 상벌(賞罰)이 있다고 강조한 것은 조작설에 불과한 것이니 종이호랑이요 그림의 떡이다. 기성 종교는 허무하여 지상 낙원이 현실화되면 자동 소멸될 것이다.

### 제자들 생존시에 예수의 재림 약속

선지자들이 유대 왕국은 영원하다고 예언한 관례로 유대인들이 이방 민족에게 타고르와 일본의 내촌(內村)은 예언하기를 한국은 동방의 빛으로 세계를 비추는 날이 온다고 예설하였으니 21세기 초 한반도가 통일되는 날 세계의 기운(氣運)은 반도 강산으로 모여 온다.

유대인의 인구가 3천년 전이나 현재나 증가되지 못하고 1천만 미만인 것은 자연사(自然死)보다 전사자(戰死者)와 학살당한 자가 다른 민족에 비하면 월등히 많은 까닭이다.

예수교의 역사를 참고하면 유다 지파 다윗의 왕통을 계승한다는 신앙이 철저하므로 예수는 빌라도 법정에서 증언할 때에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언하였

다. 그가 반역죄로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신앙하는 사람은 후세에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리라. 예수는 생존시 제자들에게 유언하기를 “내가 죽임을 당하나 망하지 않고 즉시 부활, 승천하였다가 재림한다”고 약속하고로 그 약속을 믿는 신도들은 지배자들이 예수를 불법 종교단체로 탄압하는 극한 환란 중에도 굴하지 않고 수많은 순교자를 배출하면서 성장하여 전세계에 분포되어 있으니 예수교의 불가사의는 무슨 말로 설명하여야 옳을까. 제자들 생존시에 재림한다고 약속한 것이 근 2천년이 되도록 지연되고 있으니 예수가 생존자라면 지금까지 지체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고도의 전략을 세웠다. 선민의 정통을 자부하는 다윗의 왕통을 내세워 마귀와 싸우게 만들었으니, 지금까지 마귀의 세력은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섬멸하려고 총력을 기울인 것이다. 그러나 이 싸움은 실전이 아닌 모의전(模擬戰)에 불과하다. 실전(實戰)은 승리자가 출현한 이후 한반도에서 격전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 명시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차승도

# 삼세 중생 제도하는 °미륵불 °무량광불 °극락세계 교주

무량수경은 축복산에서 석가모니가 정토사상에 대해 설법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중심 요지는 열불정명을 통한 정토왕생에 있다. 우리나라의 정토사상은 정토신앙에 대해 조직적으로 설명해 놓은 이 경전으로 인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무량수경 [無量壽經]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무량수불은 아미타불의 뜻으로 번역하여 이름하나 사공이 영원하여 삼세 중생을 제도하는 의미에서 미륵불 또는 무량광불이라 하고 극락세계의 교주이기도 하다. 무량한 지혜 광명으로 그 수명은 영생이 분체이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필자는 이 경을 승리제단 교인들이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곳에 옮겼다.

宣各勤精進 努力自求之 必得絕過去 往生安養國 橫截五惡趣 惡趣自然閉 昇道無窮

極 易往而無人 其國不逆適 自然之所牽 何不棄世事 勤行求道德 可獲極長生 壽樂無有極

모든지가 다 각기 부지런히 정진하고 노력하여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공덕을 닦을지니라, 그러면 반드시 생사의 바다를 뛰어넘어 극락세계에 왕생하여 지옥과 아귀 축생과 수리와 인간 등 오악취의 인연을 여의고 공덕이 한량없는 성불의 길에 오르게 되느니라, 참으로 극락세계에 가는 길은 쉽지만 가는 사람이 없구나! 저 미륵불의 극락세계는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않으며, 미륵불의 원력을 의심 없이 믿기만 하면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자연히 이끌려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될 터인데, 어찌하여 세상일을 뒤로 미루고 부지런히 수행하여 성불의 공덕을 구하지 않을까,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영원히 죽지 않는 한량없는 수명을 얻고 기쁨과 즐거움이 한도 끝도 없느니라.

然世人薄俗 共靜不急之事 於此劇惡 極苦

之中 勤身營務 以自給濟 無尊無卑 無貧無富 少長男女 共愛錢財 有無同然 憂樂適等 屏營愁苦 累念續慮 爲心走使 無有安時 或生摧碎 身亡命終 棄損之法 莫誰隨者 尊貴豪富 亦有斯患 憂懼萬端 勤苦若此 結衆寒熱 與通共居 貧窮下劣 因乏常無 無田亦憂 欲有田 無宅亦憂 欲有宅 無牛馬六畜 奴婢錢財 衣食什物 亦憂欲有之 適有一復少一 有是少是 思有齊等 適欲具有 使復廢散 餘時憂苦 當復求索 不能時得 思想無益 身心俱勞 坐起不安 憂念相隨 勤苦若此 亦結衆寒熱 與痛共居 或時坐之 終身天命 不肯爲善 行進難德 壽終身死 當獨遠去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박약하여 속히 닦아야 할 성불의 길은 뒤로 미루고 하잘것없는 세상일에 집착하여 서로 다투느니라. 그들은 세상의 모진 죄악과 심한 고통 속에서 다만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생활에 허덕이고 있느니라. 그래서 그 신분이 낮거나 천하거나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

이 모두 한결같이 재물에만 눈이 어두워 예를 쓰니 가진 자나 없는 자나 그 시름은 마찬가지로 마다하며 매사에 서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며 얹고 쌓인 욕심과 근심으로 사뭇 쫓기고 방황하나니 잠시도 마음 편할 사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마음이 멍들고 몸이 허물어져 목숨이 다하게 되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지 않을 수 없겠단, 그 아무것도 따르는 것이 없나니, 이러한 서글픔은 준귀한 이나 부자나 매한 가지니라. 이와 같이 갖가지 근심과 두려움과 애타는 괴로움은 끝이 없으니 마치 어둠 속이나 불 속의 괴로움과 같으니라. 그런데 가난하고 천한 사람은 매양 군색하고 불만과 마음이 그치지 않으며 눈발이 없으면 눈발을 가지려고 애쓰고, 집이 없으면 또한 그것을 가지려고 애쓰며, 말이나 소 등의 가족이나 종들이나 금전, 의복, 음식 등의 재산이 없으면 이를 가지려고 사뭇 안달하며 괴로워하느니라. 그래서 한 가지가 있으면 다른 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부족하고 애써

이것저것을 다 함께 가지려 하며, 어찌다가 모두 갖추어 가졌다 할지라도 오래 가지 못하고 어느덧 없어지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근심하고 괴로워하여 안절부절못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매사 근심과 괴로움이 끊이지 않고 마치 얼음을 안고 불을 품고 있는 것과 같으니라. 그리고 그러한 괴로움과 근심 때문에 몸은 상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나니, 평소애 착한 일을 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 수도를 하거나 공덕을 쌓지 못하고 불만과 마음이 그치지 않으며 눈발이 없으면 눈발을 가지려고 애쓰고, 집이 없으면 또한 그것을 가지려고 애쓰며, 말이나 소 등의 가족이나 종들이나 금전, 의복, 음식 등의 재산이 없으면 이를 가지려고 사뭇 안달하며 괴로워하느니라. 그래서 한 가지가 있으면 다른 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부족하고 애써



인간은 이 세상 애욕의 바다에서 홀로 태어나서 홀로 죽는 것이며, 어떠한 고락의 처소에도 자기가 지은 선악의 행위에 대한 과보는 스스로 받고 스스로 감당해야 하며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어찌하여 덧없고 나절한 세상일을 뒤로 미루지 않고 몸이 젊고 건강할 때에 힘을 다하여 선근을 닦고 더욱 정진하여 고해를 벗어나려 하지 않는가, 어찌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불사영생의 참 진리의 대도를 구하려 하지 않는 것인가. 도대체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을 기대하고 그 어떠한 즐거움을 바라고 있는 것일까.\*

수리(修理) 합장



## 석가모니는 출몰 미륵만 기다렸다 <27>

### 미륵이 아픔의 장자 '단'과 같은 심판권을 가진 분 - 7

미륵보살이 성불하여 미륵부처님이 되고 미륵부처님(하나님)은 영생의 대도를 말씀하시지만, 세상의 사람들과 종교지도자들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권력을 이용하여 제도권 처리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께 대항하고 오히려 종교지도자들은 저항하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미륵부처님)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면서 마귀들은 아무 소동 없이 최종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하면서 일차 마무리가 된다.

그러나 지난 편에서 미륵부처님에게 인간들의 선과 악을 기록하여 심판한다는 불경의 기록을 보면 성경에도 분명하게 그 부분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이 천손민족인 한국인에게 오래 전에 약속하신 일이 1980년 10월 15일 이루어졌으며 이때 다섯 번째 동방 아축불(阿闍佛)이셨던 박태선 장로와 6번째 천사였던 해와 이긴자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완성자 미륵부처님 등 세 분이 모처에서 만나 하신 말씀이 있었다.

그때 하나님(박태선 영모님에게 함께 하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늘나라가 회복되었으니 더 고생하지 말고 구원의 역사(죄인·인간들)를 버리고 마무리하지”라고 말씀하셨으나, 이에 완성의 하나님(미륵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니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제계 시간을 주세요 제가(미륵부처님) 하겠습니까.”라고 의견을 드리니 하나님께서 이미 최종 심판권을 단에게 부여했으며 단지와 후손이며 완성자인 대한민국의 출생한 미륵부처님의 의견을 하나님도 거절할 수가 없으므로 그럼 알겠다 하여 지금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

# 석가모니는 미륵을 기다렸다 <27>



아픔이 열 두 아들의 장래 일을 예언할 때 다섯 번째 아들 단을 특별히 일곱 번째 손서에 두었다 사진 출처 \_ http://gyusikjung.blogspot.com/2019/01/49.html

지고 있는 것이다. 그 부분을 성경 창세기에서 찾으면 아래와 같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the tribes of Israel. Dan shall be a serpent by the way, an adder in the path, that biteth the horse heels, so that his rider shall fall backward. I have waited for thy salvation, O LORD. Genesis 49장 [KJV] 16-18

但必判 他的民, 作以色列支派之一. 但必作道上的蛇, 路中的, 咬 蹄, 使 的 落于后. 耶和 阿, 我向 等候 的 救恩. 世 49 [ ] 16-18

“영생의 역사는 구세주의 얼굴에서 빛을 발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때가 심판 일입니다. 구세주 조희성 선생이 백보좌 심판자가 되어 죄인은 지옥으로 의인은 천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따로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구세주 조희성 선생으로부터 발산되는 빛에 의해 이 우주구 의인들에게는 천국이 됨과 동